

# Living the Lotus 2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33



##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Rissho Kosei-kai of San Antonio A New Beginning with Gratitude and Resolve

Living the Lotus  
Vol. 233 (February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교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 미래를 키운다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눈 앞에 꿀이 3개 있다고 합시다. 그 꿀을 들어서 나눠 먹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어느 학교 선생님이 두 명의 학생에게 꿀을 3개 건네주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하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한 개는 부처님께 드리고, 나머지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나눕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무슨 소리냐. 한 개 반씩 나누면 되지”하며 그 학생의 말을 무작정 부정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산수 문제에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만, 아동문학자 하나오카 다이카쿠(花岡大学學:1909-1988)씨는 아동문화 연구가인 요시오카 타스쿠(吉岡たすく:1915-2000)씨와 나누는 대담 중에 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아교육과 종교적 정서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를 초월한 존재를 ‘배례하는 세계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윤택함과 여유가 없는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만드는 커다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우리 아이한테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시키지 마세요”라고 요구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유전자 공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무라카미 카즈오(村上和雄:1936-2021)씨의 저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내고 있으니까.....’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먹겠습니다”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물의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식사할 때마다 의식하며 감사하는 말’입니다. 온갖 생명을 키워 주는 대자연과 신불(神佛), 그리고 식탁에 먹을 것을 올려 주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말로, 그것은 즉 ‘배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공익과 합리성만을 보는 부모나 어른들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운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 미래는 ‘지금·여기’에 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정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사나 사원을 참배하고, 선조님을 추모하는 기간에는 성묘를 하고, 설 추석에는 선조님의 영혼을 맞이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또한 신도(神道)와 불교, 그리고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도 들어 와 있으며, 서양의 습관이나 풍속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받고 배우며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고귀한 것을 배례하는 종교문화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배례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례하는 마음을 되찾아 주고, 아이에게는 부모나 어른들이 생활 속에서 고귀한 것을 존경하고 배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독경공양은 그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출발점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여기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닦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자녀와 손자의 마음을 키우고 모두가 서로의 불성을 서로 믿는 ‘미래를 키운다’는 것이 됩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들이 성장하고 향상하면 할수록 보다 더 밝은 미래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모가 매일 신불 앞에 손을 모으고,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학자가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는 것도 어머니의 안정된 마음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또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가정에 편안함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도—‘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세 가지 말의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소중히 해 갑시다. 그러한 부모와 어른들의 뒷모습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운택하게 적셔 주며 키워 주기 때문입니다.

(『교성』 2024년2월호)





##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할 것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군지 · 미스미 · 에리카

### 입정교성회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입회를 하셨습니까?

30년쯤 전, 아버지에게 이끌려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에 간 것이 입회를 한 계기입니다. 그때, 브라질 교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도량을 개방하여 아이들의 천식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에는 대기오염 영향때문에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0~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추마사지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압사인 아버지는 교성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같은 지압사 그룹 선생님들과 함께 도량에서 지압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종교를 찾고 있었는데, 입정교성회와 인연을 맺고 법화경 가르침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부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도량에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불안해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장님인 사사키 마리아 히로미 교회장님께서 당시 이미 청년부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 청년부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가깝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의 저에게 있어서 사사키 교회장님은 청년부 리더로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아주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 청년기에 종교를 찾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1살 밑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8살 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춘기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그 큰 정신적 쇼크와 슬픔은, 청년기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아, 정말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동생과 함께 자주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슬퍼져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입정교성회의 신앙과 만나, 선조공양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배우게 되어, 아침 저녁으로 법당을 향해 독경공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부님께서 법화경의 공덕이 미스미 집안(三角家)의 선조님과 조부모, 그리고 사고로 죽은 여동생에게 회향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경전을 읽었습니다. 독경 공양을 매일 계속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은 안정이 되고 슬픔도 치유가 되면서, 긴 시간에 걸쳐 괴로워 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2024년 10월에 교사자격을 수여 받았네요. 현재의 심경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걸핏하면 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나 법화경을 공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을 수여받음으로써 앞으로는 내 인격향상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이 고귀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여, 제가 이 가르침에 의해 얻은 행복을



작년12월8일, 브라질 교성회의 성도절 식전 때, 설법을 하는 군지씨

많은 사람들도 맞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단순히 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과 뒷모습으로 보여 나가겠다고, 대성당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사 자격을 수여 받았을 때 본존님께 서원하였습니다.

## 법화경에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약초유품에 나오는 ‘삼초이목의 비유’가 인상 깊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풀과 나무가 있어서 불평등하게 보이지만, 모든 초목이 비를 맞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와 성질, 크고 작음 등 표면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래 그곳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것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각자 둘도 없이 매우 소중한 훌륭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에 감동하였습니다.

## 입정교성회 가르침 중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입정교성회에서는 평소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바뀌기 보다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자신도 이전에 시누이와의 관계의 불화 때

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시누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교성회에서 ‘먼저 내가 바뀐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 실천을 해보았더니 시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지금은 아주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세요?

가장 큰 매력은 ‘먼저 남부터’라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화경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가르침에 의해 스스로가 보살이 되어 정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가 성장하고, 또 스스로가 성장함으로써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된다. ‘먼저 남부터’라는 마음을 저는 이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 바라는 것과 앞으로의 수행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드디어 입정교성회 브라질 교회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포르투갈어의 ‘법화삼부경’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의의가 있는 해를 맞이하여,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승가 여러분과 협력하여 사사키 교회장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산파울로 지부에서 주임 역할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구 회원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더욱 포교활동에 몰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교성회 식전과 행사 등, 개조님과 회장선생님의 말씀을 포르투갈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많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법화경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3월10일, 교단창립86주년 기념행사 식전에서 통역 역할을 하는 군지씨(왼)



# Spiritual Journey



남편과 두 딸,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 세계를 커다란 승가로 만들자

### 범화경 신자는 다보여래

입정교성회 개조님 니와노 닛쿄



그러므로 신앙함으로써 얻은 공덕을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다보여래」입니다. 니찌렌(日蓮)성인이 사도(佐渡)로 유배되었을 때 그 고장의 염불종 신자인 아불방(阿佛房)은 니찌렌성인을 아미타여래의 원적이라고 생각하여 베어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인의 인격과 식견에 경복(敬服)하여 부부가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불방이 「다보여래 보탑이 솟아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해 니찌렌성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법 시대에 법화경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 외에 보탑은 없느니라.(중략)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제창하는 자는 그 몸이 보탑이며, 그 몸이 또한 다보여래이니라. 묘법연화경 외에 보탑은 없느니라 (중략)

아불방이 보탑이며 보탑이 아불방이니 이것 외의 재치는 무익이라」 (아불방에서) 이 「이것 외의 재치는 무익이라」 는 한 구절은 참으로 신앙의 궁극을 찌른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재치(세간적인 지혜와 학문)같은 것은 무용하다, 고분고분하게 정성들여서 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입정교성회 여러분은 법화경과 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조석으로 「나무묘법연화경」을 제창하는 사람이므로 모두 「다보여래」입니다. 석가모니와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증상만이 아닙니다. 당연한 자부심입니다.

「장자궁자의 비유」에서 궁자가 궁극의 구제에 도달하기까지 20년이나 걸린 것은 그와 같은 자각·자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부처님)쪽에서 일부러 더러운 옷을 걸치고 궁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부모와 자식처럼 지내자」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궁자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궁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안 이상, 더 이상 궁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실제 자식입니다. 후계자입니다. 그 진실을 다시 한 번 새로 음미하여 주십시오. 실로 이것 외의 재치는 무익입니다.

니와노 닛쿄 법화집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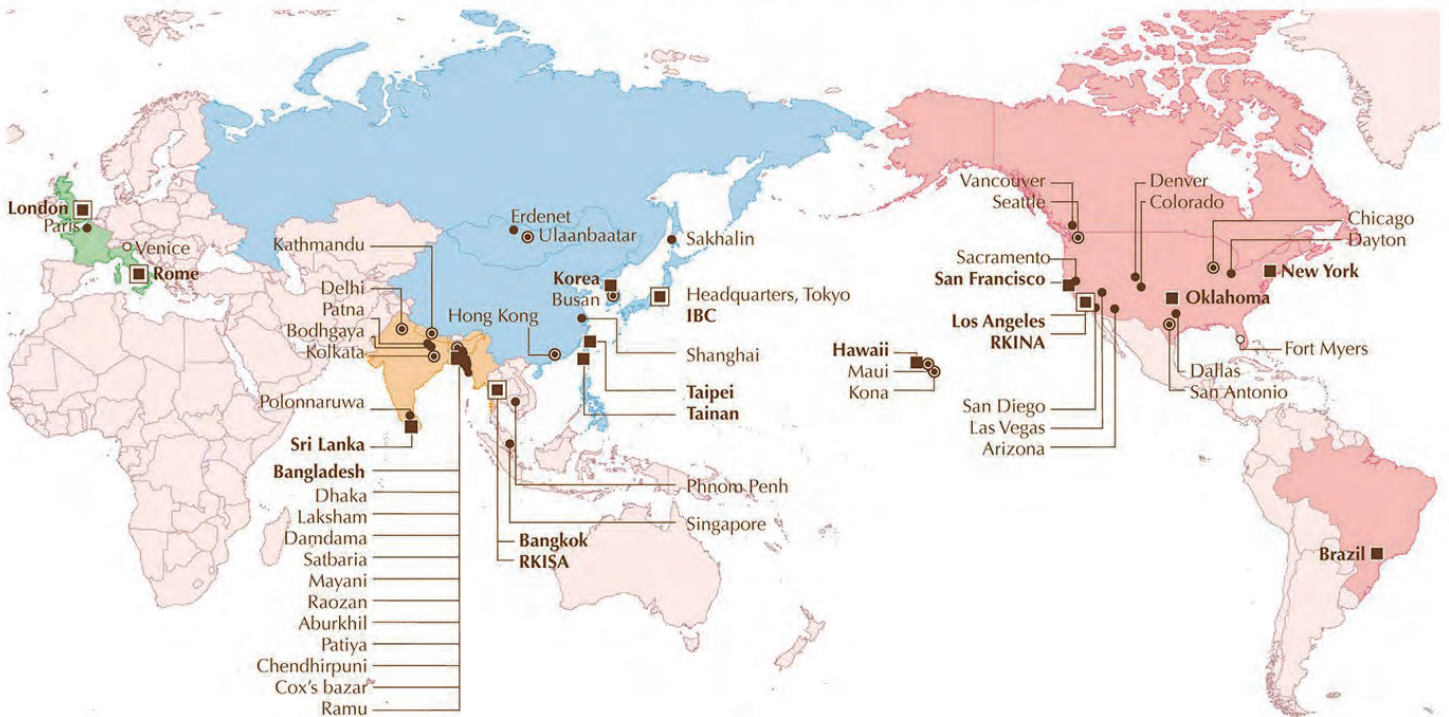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